



미국 1월 CPI 서프라이즈

미국 1월 CPI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Headline CPI와 Core CPI가 각각 전년대비 3.1%, 3.9% 상승. Headline CPI는 12월(3.4%)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Core CPI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딤(11월 4.0%, 12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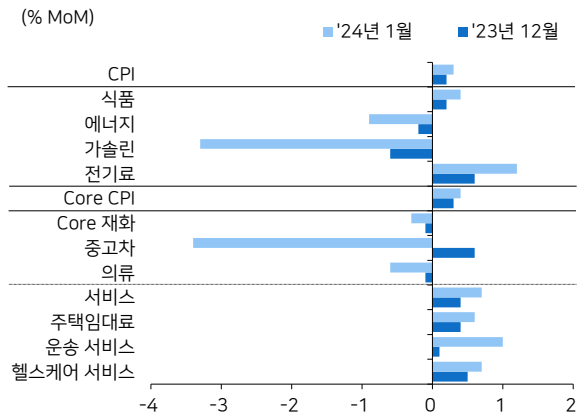
원인은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주택 임대료가 전월대비 0.6% 상승하면서 12월(0.4%)보다 다시 상승 모멘텀 강화. 주택 임대료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 기록. 주택 임대료 외의 서비스 물가도 상승 압력도 유지.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더딘 임금 상승률 하락에 기인한다는 판단

시장의 우려는 물가 상승률의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Median CPI, Trimmed Mean CPI 등 지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지속.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바스켓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집계하는 Atlanta Fed의 Sticky CPI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

통화정책 관점에서 이전과 다른 점 한가지는 상기할 필요. 바로 인플레이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New York Fed가 집계하는 1월의 1년 이후 인플레이 기대 치는 3.0%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 인플레이 기대가 추세 하락한다면 긴축적으로 다시 전환할 필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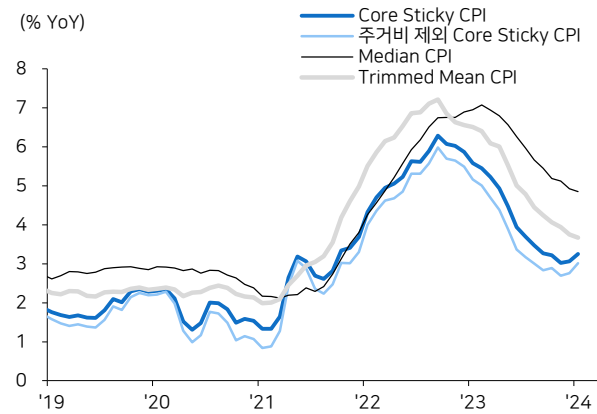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기료의 상승. 통상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지만, 이번 국면은 에너지 연료 가격은 하락하는데 전기료는 계속 상승하는 중. 주요 기업 어닝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음

그림1 미국 CPI 전월대비 상승률: 1월 vs 12월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Sticky CPI 상승률의 저점 이후 반등



자료: Atlanta Fed, Cleveland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New York Fed의 1년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 서베이



자료: New York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에너지 가격과 별개로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